

뉴스홈 | 최신기사

# [우크라 침공] 중국 "각국 자제해 상황이 통제 잃지 않기를"

송고시간 | 2022-02-24 16:20











김진방 기자



#### 러시아 침공 속 우크라 수도 키예프의 아침 전경

(키예프 로이터=연합뉴스) 24일(현지시간)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이침이 밝아오고 있다. 이날 오전 4시 50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군사작전을 선언하며 "우크라이나군은 무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"고 말했다. 그는 또 "우리의 작전을 방해하는 다른 나라들은 그간 본 적 없는 결과를 맞이할 것"이라고 경고했다. 2022.2.24 alo95@yna.co.kr

(베이징=연합뉴스) 김진방 특파원 = 중국 정부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"각국이 자제해 상황이 통제 를 잃지 않기를 촉구한다"고 밝혔다.

화춘잉(華春瑩)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이전 입장과 달 리 비난할 것이냐는 질문에 "중국은 (우크라이나) 최신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"면서 이같이 답했다.

chinakim@yna.co.kr





[우크라 침공] 국제사회 규탄...유럽·나토 "즉각 대응할 것"(종합) 정의용, 내일 재외공관장과 화상대화...우크라 상황 논의 [우크라 침공] "미국,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 검토"(종합) [우크라 침공] 신냉전 현실로...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

###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2/24 16:20 송고

#우크라 #중국





















## 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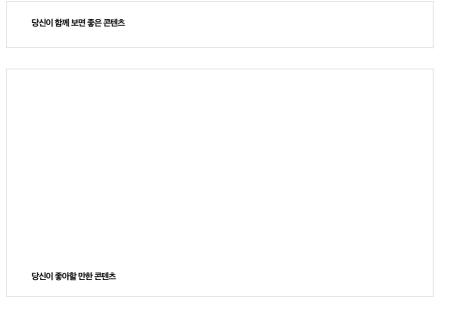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

We Do Technology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 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마스크만 빼고...'사회적 거리두기' 2년1개월 만에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 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 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#### 댓글 많은 뉴스

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유튜브채널











sns **f** 





Ö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+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계약사/제휴문의

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관련사이트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

외국어